

# 여름엔 추리소설...책장 넘기는 소리마저 오싹

## 미스터리·스릴러 소설 인기

김별아 '구월의 살인' 기대작  
범접 소재 미국·일본 신간도

추리소설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름엔 여러 장르 중에서도 미스터리와 스릴러 소설의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미스터리·스릴러 등 장르 소설은 이맘때 읽는 게 제격이다. 스피드하고 장면 전환이 빨라 한번 책을 볼땐 끝까지 읽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출판계에서도 여름을 미스터리·스릴러물의 성수기로 본다.

지난해 6월에서 8월까지 출간된 장르 소설의 비중은 한 해 발간된 미스터리·스릴러 장르 소설의 43%를 차지했다.

인터파크 도서에 따르면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미스터리·스릴러 소설 판매량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여름 판매량이 겨울 시즌 대비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그만큼 독자들이 장르 소설을 여름에 많이 읽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올해도 장르 소설 판매 추이는 비슷해 지난 1월보다 6월 한 달간 장르소설 판매량이 2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미스터리와 스릴러 등 장르 소설은 여름에 많이 팔리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 8월 까지도 이 같은 판매량 증가 추세를 지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휴가 시즌을 맞아 미스터리물이 발간되고 있어 무더위에 지친 독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인터파크 도서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장르 소설을 한데 엮은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올 여름 선보인 미스터리·스릴러 소설들

올 여름 미스터리 기대작은 '미실'의 작가 김별아의 '구월의 살인'이다. 효종 즉위년 도성 한복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토대로 한 작품이다.

어둠이 내리는 시각 도성 한복판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 범행을 현장에서 목격한 자가 있음에도 사건은 강도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고, 피해자의 자식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형조 판서의 거마에 뛰어들다. 석연치 않은 정황에 원점으로

돌아간 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데 정평이나 있던 전방유의 손에 맡겨진 뒤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띤다.

일본작가 이마무라 마사히로의 '시인장의 살인'도 눈여겨볼 작품이다. 대학교 동아리 MT에 참가한 이들이 담력 시험을 하다가 숙소에 갇혀 하룻밤을 보낸다. 이른 날 부원 중 한 명이 밀실에서 잠속한 시체로 발견되면서 긴장감이 점차 짙어진다.

이아무라 마사히로의 데뷔작인 이 소설은 지난해 일본에서 미스터리·스릴러 분야 상을 휩쓸었으며 올해까지 각종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랐다. 기상천외한 사건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신예작가의 내

공을 엿볼 수 있다.

진 필립스의 '밤의 동물원'은 여성이자 엄마인 주인공이 활약하는 스릴러다. 다섯 살 아들 링컨을 데리고 동물원을 찾은 조앤은 숲 너머에서 들려오는 굉음을 듣는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물원에 잠입한 괴한들의 충격이었다. 아들 링컨을 업고 도망치는 로앤은 자칫 괴한들의 눈에 띄어 살해당할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에 빠져든다. 소설은 현실감 넘치는 캐릭터 설계와 섬세하고 다층적인 감정 묘사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10여 년 전 미군이 점령한 이라크 바그다드를 배경으로 한 작품도 있다. 아흐메드 사다위의 '바그다드의 프랑켄슈타인'은 폐허가 된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라크 정부는 한 폐품업자에게 시체를 꿰매게 하고 이후 장례를 치러준다. 어느 날 저녁 밖의 일을 보고 집에 돌아온 폐품업자는 시체 한 구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다. 그 후 기이한 살인사건들이 잇따라 도시를 휩쓸면서 공포의 도가니로 변모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도 눈길을 끈다. 마치다 고 '살인의 고백'은 19세기 말 일본 가와치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뤘다. 일명 '가와치 10인 살해사건'은 '인간은 왜 인간을 죽이는가'를 화두로 살인자의 심리를 파고든다. 아쿠타가와상, 가와바타 야스나리상 등 주요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김지하 시인 절필 선언

등단 50주년 마지막 시집 '흰 그늘' 산문집 '우주생명학' 출간

"마지막 시집이다 /교정하지 않는다 / 마지막 다섯줄 '아내에게 모삼' /한편으로 끝이다 /이제 내겐 어릴 적 한(恨) / '그림' 과산 밖에 없다 / 끝" ('흰그늘' 중에서)

목포 출신 김지하(77) 시인이 등단 50주년을 기념하는 시집과 산문집 발간을 끝으로 더 이상 집필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서 출판 작가는 최근 시집 '흰 그늘'과 산문집 '우주생명학' 출판 보도자료에서 "김 시인이 생전에 펴내는 마지막 저서라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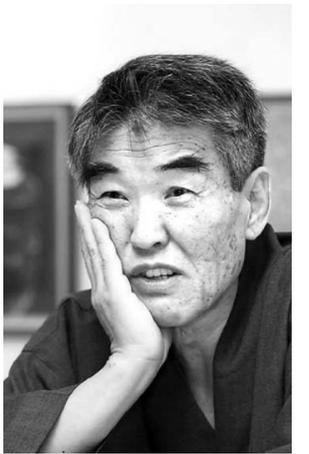
김지하 시인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시 '황토길'로 등단했다. 이후 유신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의 상징이자 민족문학 진영의 대표 문인으로 주목받았다.

1970년 풍자시 '오적(五賊)'으로 구속되는 필화를 겪었으며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 특히 '타는 목마름으로'는 그의 대표작을 넘어 저항시의 상징으로 각인됐다.

그간 만해문학상,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의 로터스 특별상, 정치운동문학상, 만해대상, 국제시인회의 위대한 시인상 등을 수상했으며 노벨문학상·노벨평화상의 생명사상을 정립하는 데 몰두했으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작품을 썼다.

그러나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행보로 진보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산문집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계기가 됐던 촛불시위와 일련의 한반도 정세에 주목한 글들도 담겨 있다. 김지하 시인은 "북한의 독재자 제거 형식에 의



한 통일 정도가 아니고 200만, 300만 촛불이 평화적 행동에 의한 대개혁의 길, '통일·융합·창조'의 과정에 이제 또 하나의 더 큰 '4·19'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번 작품들의 책임편집을 맡은 홍용희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본인의 정확한 마음이야 알 수가 없지만 글 쓰는 것을 그만두고 현실에서 조금 떨어져 살고 있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시집에서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더 스퀘어' '비트윈 랜드...' 광주극장 개봉작 8월9일 '미드나잇 인 파리' 관객과의 대화

광주극장이 코미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보인다.

8월 2일 개봉하는 '더 스퀘어'는 현대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크리스티안'이 전시 '더 스퀘어'를 앞두고 겪게 되는 기상천외한 일상을 담은 예측불허 코미디이다.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의 신작으로 3년 전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은 현대 전시 '더 스퀘어'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된 작품이다.

SF 판타지 '주피터스 문'도 같은 날 개봉한다. 영화는 인생에 실패한 남자가 우연히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신비한 소년을 만나 재기를 꿈꾸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8월 9일 개봉하는 '비트윈 랜드 앤 씨'는 오로지 서핑을 즐기기 위해 아일랜드 라인치로 터전을 옮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서핑 다큐멘터리이다. 영화는 서퍼

들이 자리잡으면서 지역 경제를 변화시킨 아일랜드 라인치를 집중 조명할 뿐만 아니라 서핑이라는 소재를 통해 옴로, 워라벨 등 현 세대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탐구한다.

광주극장의 8월 '시네마 가이드 맵'에서는 조대영 광주독립영화전용관 프로그래머가 추천한 우디 앨런 감독의 '미드나잇 인 파리'를 상영한다. (8월9일 오후 7시 30분)

영화는 파리를 배경으로 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화 중 한편으로, 1920년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피카소, 헤밍웨이, 달리 등)과의 만남과 세기를 초월한 로맨스, 아름다운 파리의 풍광은 여름 밤 최고의 낭만을 선사한다. 영화 상영 후에는 조대영 프로그래머와의 대화시간이 마련된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미드나잇 인 파리'



'비트윈 랜드 앤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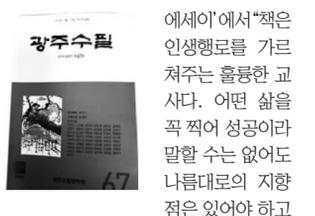
# 신입회원 작품 10편 수록...광주수필 67호 발간

광주수필문학회(회장 황옥주)의 동인지 '광주수필' (통권 67호·사진)이 나왔다.

이번 잡지에는 장정식, 이춘배, 박인순, 이정선, 오덕렬, 문일선, 오희숙, 전정자 문인 등 44명의 50여 편의 작품이 실렸다. 또한 신입회원 이기환, 김동기, 최경남, 최명숙, 윤영식의 수필 10편도 수록됐다.

이밖에 책에는 '광주수필' 66호 출판 기념회, 정기총회와 관련된 사진과 소식, 회원동정 등이 담겨 있어 동인들의 활동사항을 엿볼 수 있다.

황옥주 광주수필문학회 회장은 "권두



에세이'에서 "책은 인생행로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교사다. 어떤 삶을 꼭 짚어 성공이라 말할 수는 없어도 나름대로의 지향점은 있어야 하고 그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 책이다"며 "독자 모두가 좋은 책이라도 읽지 않으면 휴식만도 못하다. 개인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독서가 애국이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